

고려대논술

인문계

목차

2026학년도 인문계열	3
오전 · 문제 1	3
오전 · 문제 2	7
오후 · 문제 1	10
오후 · 문제 2	14
 2025학년도 인문계열	 17
오전 · 문제 1	17
오전 · 문제 2	21
오후 · 문제 1	24
오후 · 문제 2	28

2026학년도 인문계열

오전 · 문제 1

※ 아래의 글을 바탕으로 【문제 1】 과 【문제 2】 에 각각 700±50자로 답하시오.

【①】

A국의 대외 팽창 과정에서 유력자들이 넓은 땅을 차지하고 노예 노동을 이용한 대농장을 경영하였다. 반면 자영 농민층은 토지를 잃고 몰락하여 빈민이 되었고, 이들이 도시로 몰려들면서 사회 불안이 조성되었다. B는 시민들 앞에서 다음과 같이 웅변하고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들짐승도 저마다 보금자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을 위해 싸우다 죽은 시민들에게는 햇볕과 공기밖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집도 없고 땅도 없이 아내와 자식들을 데리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병사들은 용감하게 싸우고 용감하게 죽었습니다. 그것은 그들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재산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승리자이고, 세계의 지배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시민은 이제 자기 것이라고는 한 뼘의 땅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법>

- 개인이 임차할 수 있는 국유지의 상한선을 500유게룸*으로 정한다. 이밖에 아들의 명의로 한 명당 250유게룸까지의 임차를 인정한다. 다만 일가족 전체의 임차지가 1,000유게룸을 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목축용 가축 수도 600마리를 상한으로 한다.
- 1,000유게룸 이상의 토지를 임차하고 있는 자는 그것을 국가에 반환하고, 국가는 반환된 토지의 면적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 그런 다음 국가는 상설 실무 위원회를 설치하여 희망하는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재분배한다.

*1유게룸≒0.25ha

【②】

벼는 서로 어우러져
기대고 산다.

햇살 따가워질수록
깊이 익어 스스로를 아끼고
이웃들에게 저를 맡긴다.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진 백성들을 보아라.
죄도 없이 죄지어서 더욱 불타는
마음들을 보아라. 벼가 춤출 때,
벼는 소리 없이 떠나간다.

벼는 가을 하늘에도
서러운 눈 씻어 맑게 다스릴 줄 알고
바람 한 점에도
제 몸의 노여움을 덮는다.
저의 가슴도 더운 줄을 안다.

벼가 떠나가며 바치는
이 넓디넓은 사랑,
쓰러지고 쓰러지고 다시 일어서서 드리는

이 피 묻은 그리움,
이 넉넉한 힘…….

【③】

농군은 밭일에 정통하지만 농사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고, 상인은 장사하는 일에 정통하지만 장사하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으며, 공인은 그릇을 만드는 일에 정통하지만 그릇을 만드는 일을 지도하는 관리가 될 수 없다. 여기 한 사람이 세 가지 일 중 어느 하나도 하지 못하지만 이들 세 가지 일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그가 도에 정통했기 때문이며 사물에 정통했기 때문이다. 사물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을 사물대로 잘 처리하고, 도에 정통한 사람은 사물과 사물을 아울러 잘 다스린다.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을 가려 그 분야를 맡기면 국부가 넉넉해진다.

【④】

장남 전 이 집 장남입니다. 이쪽 높은 방은 저하고 누이동생이 생활하는 곳입니다. 아버지를 소개하기 전에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비결을 말씀드리겠어요. 아주 간단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하면 됩니다. 밥 세끼도 제대로 못 멕이고, 학비도 제대로 못 주는 부모들이 아들딸이 결혼할 때가 되면 아주 귀찮게 간섭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버릇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집이 비교적 행복한 것도 우리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 때문입니다. (자기 손목시계를 보며) 지금이 저녁 일곱 시 반이니 아마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겁니다. 아버지는 늘 쾌활한 얼굴에다 발걸음은 참새처럼 가볍지요. (중략)

처 어서 옷을 갈아입으세요.

(처는 교수 허리에 칭칭 감긴 철쇄를 풀어헤치고, 소파 뒤의 막대기에 감겨 있는 또 하나의 굵은 줄을 풀어 교수 허리에 다시 감아 준다.)

옷을 갈아입으시니 한결 시원하지 않아요?

교수 난 잘 모르겠어.

처 김 씨 만나봤어요?

교수 아니, 원체 바빠서.

처 그렇지만 김 씨 만나는 일이 제일 바쁘지 않아요? 내일까지 내야 하는데 전 어떡해요.

교수 내일 만나, 내일 만나.

처 내일 누가 누구를 만난단 말이에요?

교수 내가 그 이 씨를 만난다니까.

처 이 씨는 또 누구요?

교수 당신이 만나라는 출판사 주인 말이야.

처 그 주인이 왜 이 씨예요? 김 씨지.

교수 그래, 김 씨랬어.

(중략)

처 지금 하시는 번역은 언제 끝나요?

교수 지금 하는 번역이 몇 가지나 있지?

처 그러니까 밤낮 원고료를 팔리우지요. 『자존심의 문제』, 『예술에 있어서의 창조성』, 『어떤 여자의 고백』, ……이렇게 셋뿐인가요?

교수 그렇겠지. 아이, 피곤해.

처 어떤 것이건 빨리 끝내야지, 어떻게 해요. 집도 수리해야겠구, 축음기도 사야겠구, 또 이달에 아버지 생일도 있잖아요.

【⑤】

생명체가 가진 많은 수의 유전자에는 효소뿐만 아니라 특정 역할을 하는 단백질의 유전 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유전 정보에 의해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이 합성되며, 단백질에 의해 털 색깔, 뿔 모양, 귀 모양 등과 같은 여러 형질이 나타난다.

유전자의 DNA 염기 배열 순서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데, 이를 ‘3 염기 조합’이라고 한다. 3 염기 조합은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지구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생물에서 동일하다. 유전자에 저장된 유전 정보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 단백질이 합성될까? DNA의 유전 정보는 RNA로 전달되고,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합성된다.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전사’라고 한다. 전사를 통해 만들어진 RNA가 리보솜과 결합하면 RNA의 코돈**에 따라 단백질이 합성된다. 이와 같이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번역’이라고 한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는 DNA를 전사하여 RNA를 만든 후, 코돈을 번역하여 단백질을 합성한다. 합성된 단백질 중에는 세포의 구성 성분이 되는 것도 있고, 생명체에서 형질이 나타나게 하는 것도 있으며, 생명 현상이 유지되도록 작용하는 것도 있다.

* 리보솜: 세포질에 있는 세포 소기관으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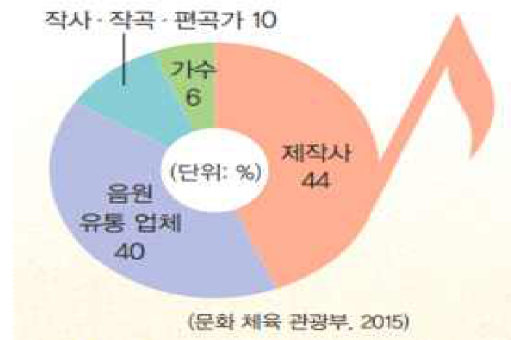
** 코돈: RNA에서 정보를 담고 있는 3개의 연속된 염기.

[문제 1]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⑥]



[그림1] 고용 형태별 임금 격차



[그림2] 디지털 음원의 수익 구조



[그림3] 사회 양극화가 심화하는 원인

연도	부정 수급자 수(명)	부정 수금액(백만 원)
2013	21,735	11,725
2014	22,108	13,092
2015	21,493	14,806

(고용 노동부, 2015)

[그림4] 실업 급여 부정 수급

■ 예시 답안

- ⑥은 경제 불평등과 분배적 정의라는 사회적 문제를 다룬다. [그림1], [그림3]은 경제적 불평등에, [그림2], [그림4]는 분배적 정의의 문제에 초점이 있다. 이에 대해 국가와 사회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①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시민들에게 농지를 분배하고 기준 이상의 농지를 가진 자는 반환하도록 하는 법을 다룬다. 이처럼 근로자가 업무 내용과 성과에 따라 적절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장려한다면, [그림1]의 정규직·비정규직,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그림3]에서의 노동시장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다. 또한 누진적 조세 제도와 재분배를 통해 [그림3]에서의 부의 세습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③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각 분야에 능한 사람을 가려’ 적재적소에 노동력을 배치하는 것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언급한다. 이처럼 능력에 따른 고용 제도를 통해 [그림3]에서의 부의 세습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농업, 상업, 공업 분야 등의 직업훈련과 일자리 찾기를 실업 급여와 연계하여 [그림4]의 실업 급여 부정 수급과 같은 도덕적 해이의 문제를 개선할 수 있다.
- ②는 민중이 ‘햇살 따가워질수록’과 같은 어려운 상황을 ‘서로가 서로의 몸을 묶어’ ‘더 튼튼’해짐과 같은 사회적 연대를 통해 극복하는 것을 묘사한다. 이는 경제적 약자인 [그림1]의 비정규직·중소기업 노동자와 [그림2]의 작사·작곡·편곡가, 가수 등이 노동조합 조직과 집회 등 사회적 연대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개선과 분배적 정의의 확립을 촉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추가>

- ④는 ‘밤낮 원고료를 찢리우’는 교수를 통해 번역 업계 수익 구조의 불공정성을 간접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그림2]의 가수 등이 수익 구조에서 소외되는 상황과 유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는 기업의 수익 구조와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 ⑤는 생명체의 유전자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성된 단백질을 설명하며,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이 생명체에서 여러 형질로 나타난다는 점을 언급한다. 이는 단백질 합성 장소인 리보솜처럼 노·사·정 간 꾸준한 협력을 위한 창구를 마련하여 상생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그림1]과 [그림2]의 노동시장 불평등 및 분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채점 기준

- 제시문 ①, ②, ③을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③ 외의 제시문을 활용한 경우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④, ⑤를 선택한 답안 참조)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경제 불평등, 분배적 정의
①	15	업적에 따른 분배, 재분배 등
②	15	사회적 연대를 통한 불평등 해결 등
③	15	능력에 따른 고용, 적성에 맞는 직업훈련 등
④	최고점 13	노동자 처우에 대한 관리 감독 등
⑤	최고점 13	사회적 협력(상생) 관계 등

오전 ·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오전 · 문제 1)을 참고하십시오.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와 비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관된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십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과거의 단순 협업과는 다르다. 과거의 단순 협업은 개개인들의 노동 방식을 변경시키지 않았지만, 공장제 수공업에 의한 노동 방식의 급격한 변화는 개별 노동력을 완전히 장악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함으로써 노동자를 소외시켰다. 사적 소유와 분업, 계급적 사회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은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인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함으로써 자아실현을 가로막는다. 결국 자본주의는 이윤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목적을 지속해서 주입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황폐화하고 인간이 물질에 종속되어 인간성을 상실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

■ 예시 답안

<‘옹호’의 경우>

- ⑦은 공장제 수공업 등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인해 생기는 노동자의 인간 소외 현상과 물질만능주의를 지적하며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을 제시한다. 사회 양극화와 억압적 사회 구조 속의 약자를 보여주는 ①, ②와 인간성 상실을 보여주는 ④를 통해 이러한 시각을 옹호할 수 있다.
- ①은 유력자들의 대농장 경영으로 인해 농민층이 생산 기반인 토지를 잃고 도시 빈민으로 전락하여 빈부격차가 심화하고 사회 불안이 조성된 상황을 비판한다. 이러한 사회 양극화나 계층 갈등은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⑦의 계급적 사회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으로 인해 노동자의 자유로운 생산 능력이 억압당하고 파편화된 상황과 통한다.
- ②는 따가운 ‘햇살’ 등 자연 현상으로 비유되는 고난과 시련 속에서 ‘쓰러지고 쓰러지는’ 벼의 모습을 통해 무고한 민중의 고달픈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민중이 억압적인 사회 구조로 인해 약자의 처지에 놓였다는 점에서 ⑦의 자본주의로 인해 자유롭고 의식적인 활동이 왜곡당하고 마음이 황폐해진 소외된 노동자의 모습과 통한다.
- ④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현대인의 생활상을 풍자하며, 수동적이고 기계적으로 번역에 종사하는 교수와 교수의 경제력에만 집착하는 처의 물질만능주의적 모습을 보여준다. 이는 ⑦에서 비판한,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생산적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고 특수한 기능만 촉진하여 인간을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만들어 인간성을 상실케 하는 인간 소외 현상을 심화시키는 문제점과 통한다.

<추가>

- ③은 능력과 적성에 따라 직업을 각각 맡아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직종을 아울러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이도 있어야 국부가 성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⑦에서 자본주의가 노동자의 모든 생산적인 능력과 소질을 억압하면서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해 노동자를 소외시켰다고 비판한 것과 연결될 수 있다.
- ⑤는 세균에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생물이 3 염기 조합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며 인간을 DNA와 단백질이라는 구성요소로만 파악한다. 이는 ⑦에서 자본주의가 특수한 기능만을 촉진해 노동자를 소외시키고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함으로써 자아실현을 가로막는다는 비판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비판’의 경우>

- ⑦은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노동자를 소외시켜 그들의 자아실현을 가로막고 인간을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시킨다고 비판한다. 이는 인간의 능동적 의지, 분업의 효용과 가치를 강조한 ②, ③, ⑤를 활용하여 비판할 수 있다.
- ②는 백성들이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 고난을 극복하는 모습을 벼의 생명력과 속성에 빗대어 노래한다. 이는 억압에 굴하지 않고 연대하여 저항하는 민중의 주체성과 힘을 보여주는 것으로, ⑦에서 자본주의 속 노동자가 파편화되고 자아실현에 가로막혀 마음이 황폐해지고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비판과 배치된다.
- ③은 어떤 일을 처리한다고 해서 그 일을 아울러 다스리는 능력까지 갖춘 것은 아님을 지적하며, 능력과 적성에 따라 일을 맡기고 그들을 관리하는 사람을 두어 업무 간 효율을 증대시키는 생산 방식이 국부를 넉넉하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분업의 효용과 가치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분업이 특수한 기능에만 숙련된 노동을 촉진하여 노동자를 소외시킨다고 비판하는 ⑦의 주장과 배치된다.
- ⑤는 유전자와 단백질의 관계 즉, DNA로부터 RNA가 만들어지고 RNA로부터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합성된 단백질은 세포의 구성, 형질 발현, 생명 현상 유지처럼 서로 다른 역할과 기능을 수행한다. 이는 구성요소 간 유기적인 상호 작용이 생명체의 본질을 이룬다는 점에서, 분업적 생산 방식이 노동을 왜곡하고 파편화한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된다.

<추가>

- ①은 분배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토지를 잃고 몰락한 농민에게 임차 농지를 제공하는 법의 제정을 추진하였다. 이는 국가가 대농장 경영주와 자영 농민층의 계급적 사회관계를 조정하는 정책을 시행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계급 관계에 토대를 둔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이 초래한 계층 갈등, 사회 양극화가 노동자의 소외와 파편화로 귀결된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다.

- ④는 무의미하고 부조리한 현대인의 생활상을 풍자한다. ‘교수’는 물질에 종속된 ‘처’의 요구에 무기력하게 끌려다니는 듯하지만, 동문서답을 하거나 피곤하다고 말하며 종속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사를 은연중에 드러낸다. 또한 부모의 열렬한 책임감이 행복한 자신의 가정을 이루는 비결이라는 ‘장남’의 말을 통해 자본주의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황폐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이윤 극대화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는 자본주의로 인해 인간이 물질에 종속된 존재로 전락하고 만다는 ⑦의 주장과 배치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②, ④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②, ③, ⑤를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라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옹호의 경우		
구성	배점	핵심 키워드
서론	5	자본주의적 생산 방식, 인간 소외, 물질만능주의
①	15	빈부격차, 사회 불안, 계급적 사회관계 등
②	15	사회적 약자, 고난과 시련, 소외된 노동자 등
④	15	수동적 노동, 물질만능주의, 인간성 상실 등
③	최고점 13	특수한 기능, 노동자 소외 등
⑤	최고점 13	인간을 구성 요소(DNA, 단백질)로만 파악 등

오후 · 문제 1

※ 아래의 글을 바탕으로 【문제 1】 과 【문제 2】 에 각각 700±50자로 답하시오.

【①】

태풍에 쓰러진 나무를 고쳐 심고
각목으로 버팀목을 세웠습니다
산 나무가 죽은 나무에 기대어 섰습니다

그렇듯 얼마간 죽음에 빚진 채 삶은
싹이 트고 다시
잔뿌리를 내립니다

꽃을 피우고 꽃잎 몇 개
뿌려 주기도 하지만
버팀목은 이윽고 삭아 없어지고

큰바람 불어와도 나무는 눕지 않습니다
이제는
사라진 것이 나무를 버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허위허위 길 가다가
만져 보면 죽은 아버지가 버팀목으로 만져지고
사라진 이웃들도 만져집니다

언젠가 누군가의 버팀목이 되기 위하여
나는 싹 틔우고 꽃 피우며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②】

1929년 뉴욕 증권거래소 주가가 대폭락하는 대공황이 발생하면서 미국의 수많은 은행과 기업이 도산하고 실업률이 급격하게 상승하였다. 미국과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던 유럽, 아시아 등도 타격을 받아 공황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다.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공황 극복을 위해 자유방임주의 경제 원칙을 일부 포기하고, 시장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중시한 케인스의 주장을 받아들여 아래와 같은 뉴딜 정책을 추진하였다.

농업 조정법	곡물 가격 설정, 농업 생산 조절, 농민에게 보조금 지급
테네시 계곡 개발 공사법	국토 개발과 일자리 제공
국가 산업 부흥법	산업 부문의 생산 조절, 최저 가격과 노동 시간 규정
사회 보장법	노인 연금, 실업자 수당, 주 정부의 구제활동에 연방 정부의 지원

【③】

두레가 난 뒤로 마을 사람들의 기분은 통일되었다. 백룡이 모친과 쇠득이 모친도 두레 바람에 화해를 하게 되었다. 인둥이와 막둥이 사이도 웅매들이 풀어졌다. 백룡이 모친은 밤저녁으로 두레 노는 것을 보고 오는 길에 쇠득이 집으로 들어가서 “형님, 쇠득이가 어찌면 춤을 그렇게 잘 춘다우?”하고 다정한 목소리를 꺼내었다.

(중략)

백룡이네 논을 매려 와서 두레는 한바탕 들판에서 놀고 저녁때의 쉼 참이 되었다. 농군들은 논두렁에 앉아서 담배를 피운다. 술을 많이 먹으면 논을 거칠게 맨다고 그들은 누구에게나 한 번에는 한 사발 이상을 더 먹이지 않았다. 지금 그들은 담배 연기에 싸여서 이야기의 꽃이 피었을 때, 희준이도 그들의 틈에 끼여 앉아서 한 추렴을 들었다.*

“아니 희준이는 그러다가 농군이 되기 쉽겠네. 풍물 치는 것은 어디서 그렇게 배웠나.”

김 선달은 앞니 빠진 말상 같은 얼굴을 흔들며 허허 웃는다.

“글쎄 말이지. 논두 매면 곧잘 배겠는데.”

“왜 농군이 되면 못쓰나요?”

희준이는 그들을 쳐다보며 따라 웃는다.

“자네 같은 사람이야 농군이 안 되더라도 잘살 수가 있을 터인데. 참 저 사람은 별일이여!…… 왜 월급 생활은 않는다냐?”하고 조 침지는 참으로 의심스러운 듯이 희준이를 노려본다.

“월급 생활보다도, 이런 일 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그래도 무슨 주의가 다르기에 그렇지 않은가. 우리 같은 무지한 백성이야 여복*해서 땅을 파먹느냐 싶은 데? 원 참.”

조 침지는 다시 의심스러운 눈을 희준에게로 돌리는데 그러나 희준이는 잠자코 그들의 대화를 듣고 있었다.

— 그들은 오히려 원시적인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다. 인간의 생산력이 유치하였을 때 자연에게 압박을 당하고 사회 환경의 지배를 받을 때 그들은 이것을 불가항력으로 돌리는 동시에 인간을 무력하게 보고 따라서 ‘숙명적’ 인생관을 갖게 되지 않았던가? 지금 이들에게 노동은 신성하다. 사람은 누구나 노동을 해서 먹고사는 것이 가장 옳은 일이라고, 농사짓는 것과 석탄 캐는 것과 고기 잡는 것과 길쌈하는 것 같은 생산적 노동은 그것들이 우리 생활에 직접으로 필요한 것인 만큼 더욱 귀중한 일이라고 설명을 한댔자, 잘 알아듣지 못한다. 그들은 놀고서도 잘사는 사람을 부러워한다. 놀면서 잘사는 까닭이 웬일인지는 몰라도 사실이 그런 것만은 거짓말이 아니다.

*추렴을 듣다: 남들이 말하는 데 한몫 끼어 말하다.

*여복하다: 정도가 매우 심하거나 상황이 좋지 않다.

[④]

오늘날 한류(韓流)로 알려진 한국의 대중문화를 즐기려고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비록 한민족은 70여 년을 분단 상태로 지냈지만 대한민국은 경제적·문화적으로 선진국의 수준에 도달하였고, 그에 따라 한국어의 위상(位相)도 높아졌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일제 강점기에는 우리 민족과 민족어에 대한 말살(抹殺)* 정책으로 한글의 사용을 금지당해 문맹률(文盲率)*이 약 80%에 이를 정도였다. 정부 수립 후 의무 교육의 시행과 국민의 높은 교육열 덕분에 1958년에는 문맹률이 약 4%로 낮아졌다. (중략) 우리 한국어는 사용 인구가 2016년 기준 약 8천만 명으로 12위에 이른다. 또한 우리나라에 취업, 결혼, 유학 등을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수는 2016년 9월 기준으로 약 204만 명이 되었고, 외국인과 재외 동포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능력 시험(TOPIK)의 누적 응시자 수도 2016년 160만 명을 넘어섰다. (중략) 21세기 한국의 높아지는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한국어가 국제어로 쓰이는 꿈을 그려 본다. 이를 위해 한국어를 아름답게 가꾸어 세계인이 즐겁고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할 책임이 오늘의 우리 세대 그리고 나에게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말살(抹殺): 있는 사물을 몽개어 아주 없애 버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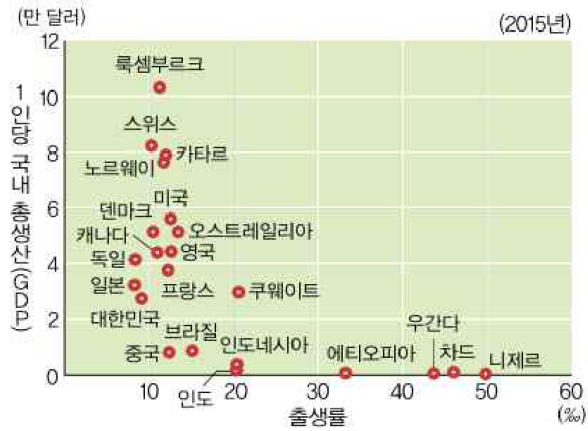
*문맹률(文盲率): 배우지 못하여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의 비율.

[⑤]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전력($P_{\text{손실}}$)은 송전선의 저항(R)이 크고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I)가 클수록 크다 ($P_{\text{손실}} = I^2 R$). 따라서 손실 전력을 줄이려면 송전선을 굵게 만들어 송전선의 저항을 줄이거나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를 줄여야 한다. 송전선을 굵게 만들면 송전선의 제작 비용이 증가하고, 송전선이 무거워져 이를 지탱하기 위해 더 튼튼한 송전탑을 세워야 하므로 효율적이지 않다. 발전소에서 보내는 전력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전류를 줄이는 방법은 전압을 높이는 것이다. 전력($P_{\text{송전}}$)은 전압과 전류의 곱($P_{\text{송전}} = VI$)이므로 전력은 변화시키지 않고 전압을 높이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가 감소하여 손실 전력을 줄일 수 있다.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은 최종 소비지에서 사용하는 전력에 의해 결정된다. 발전소에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커더라도 소비지에서 사용하지 않으면 발전기를 가동하는 데만 전력을 소모할 뿐이다. 반대로 전력 사용량이 최대 생산량에 가까워지면 모든 발전기가 최대로 가동되기 때문에 발전기에 무리가 가서 고장이 날 수 있다. 한 발전기가 고장나면 다른 발전기가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야 하므로 연쇄적인 고장과 대규모 정전 사태를 일으킬 수 있다. 최근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 통신 기술을 접목한 지능형 전력망(Smart Grid)이 연구되고 있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을 공급하는 시설과 소비자 사이에 전선을 통한 양방향 통신으로 소비자의 수요를 파악하고 그에 맞춰 전력을 적절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즉, 한 지역의 전력 소비량이 갑자기 증가하면 소비량이 적은 쪽으로 공급하던 전력을 이 지역으로 돌려 공급함으로써 전력 소비량이 초과되어 대규모 정전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또, 기존 전력망에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문제 1]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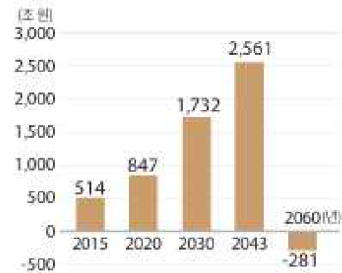
[그림1] 경제 발전 수준에 따른 인구 특성



[그림3] 생애 주기별 수입과 지출



[그림2]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그림4] 국민연금 기금 적립금 추이

■ 예시 답안

- ⑥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사회 문제를 보여준다. [그림1]은 낮은 출생률, [그림2]는 잠재 성장률 감소, [그림3]은 저연령층과 고연령층의 경제적 어려움, [그림4]는 국민 연금·기금 적립금 고갈 문제를 보여준다. 이에 대해 개인적, 사회적, 및 국가적 차원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다.
- ① ‘버팀목’은 죽은 나무는 산 나무를 살리고, 다시 산 나무는 죽어 다른 생명을 살린다. 서로 다른 세대가 동반자 관계로서, 젊은 세대는 노인 세대의 경험과 지혜를 배우고 노인 세대는 젊은 세대를 존중하는 세대 화합을 통해, 국민연금 고갈에 대해 노인과 청년이 서로 다른 처지를 이해함으로써 세대 정의의 태도를 가진다.
- ③은 ‘노동’의 중요성과 ‘공동체’의 화합을 말한다. 양성평등 가치에 기반하여, 가족 공동체 내에서 공동 가사, 출산, 및 양육을 장려하고, 사회 공동체에서 여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뿐만 아니라 남성의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일-육아 병행이 가능한 가족 친화적 고용 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저출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
- ②는 국가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 복지 정책을 설명한다. 정부는 청년 고용을 확대하면서 동시에 실버 산업과 같은 신산업 육성을 통해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직업교육과 인력개발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청년에게 출산과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기반을 제공할 수 있고, 전 연령대의 고용을 통해 청년과 노년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가의 경제 성장률을 높임으로써, 장기적으로 연·기금 고갈을 예방할 수 있다.

<추가>

- ④를 활용한 경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 증가는 한국 취업, 결혼, 유학 등의 체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외국인의 유입은 성장률 감소를 완화시키고 국민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⑤를 활용한 경우: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 소비량이 적은 지역에 공급하던 전력을 전력 소비량이 많은 지역으로 돌려 공급함으로써 전기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기존 전력망과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지능형 전력망 시스템은 새로운 산업으로서 성장률 감소를 완화시키고 연금·기금의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제시문 ①, ②, ③을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③ 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④, ⑤를 선택한 답안 참조)

오후 · 문제 2

※ 제시문은 앞 문항(오후 · 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와 비판 가운데 어느 한쪽의 일관된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공화국은 기억과 기념이 무척이나 필요하다. 기억은 시민적 덕성을 키우는 강력한 수단이다. 우리는 독재에 대해 항거한 역사나 자유를 향해 투쟁한 역사를 기념함으로써, 우리가 모두 함께 고통받았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회고함으로써, 이러한 이야기를 듣는 모든 이들에게 자신들도 그러한 업적을 만들어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가슴 깊이 일깨울 수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기념 행위들, 특히 공화국의 기념 행위들이 시장의 세계화와 폭증하는 정보 사회에서 더는 가치가 없는 케케묵은 애국주의의 표현이며, 지나간 시대의 잔재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자기들의 역사에 의미와 가치, 그리고 아름다움을 부여할 수 없는 국민이 시민적 문화에 꼭 필요한 전제 조건인 자긍심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이다. 자긍심이 없는 사람은 쉽게 비굴해지거나 아니면 교만해지는 것처럼 자기 나라에 대한 긍지가 없는 국민은 비굴해져 있다가 자신보다 약한 자들 앞에서는 쉽사리 포악한 압제자로 돌변하게 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조국과 조상의 위대함에 대해 비겁한 거짓말로 잔뜩 치장한 유치찬란한 국민적 자부심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나라 역사의 이야기들 속에서 비록 짧았고 군사적으로 패배하여 사라졌던 것이라도 그런 자유의 소중한 경험들을 다시 발견해 낼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험들을 기억함으로써 우리는 자랑스러운 역사를 물려받았다는 느낌과 함께 우리나라를 진정한 시민 공동체로 만들어야겠다는 어떤 도덕적 의무감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 예시 답안

<‘옹호’의 경우>

- ⑦에서 화자는 시민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공화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공유된 기억을 토대로 시민들은 자유를 지켜낸 공화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게 된다는 화자의 주장은 ① ② ④를 통해 옹호할 수 있다.
- ①에서 산 나무는 죽은 나무인 버팀목에 기대어 생명력을 회복한다. 화자는 이를 보며 자신의 삶을 지탱해 준 죽어간 이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자신도 앞으로 누군가를 위해 살아가겠다고 다짐한다. 이는 과거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이에 대한 자긍심이 공동체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의 바탕이 된다는 ⑦의 주장을 옹호한다.
- ②에서 미국은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해 뉴딜정책을 실시했다. 뉴딜정책은 공동체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구성원들의 자유와 행복을 지켜내어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다. 애국심은 국가의 일방적인 강요에 따른 맹목적인 미화가 아니라 시민의 자유를 지켜낼 수 있는 공화국에 대한 자발적인 사랑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 ④에서 일제 강점기 민족어 말살 정책으로 잊혀질 위기에 처했던 한국어가 세계적 위상을 갖게 되었다. 이는 한국어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 계승하고자 노력해 온 결과다. 한국어와 한국어를 사용할 자유를 지켜낸 경험과 자긍심이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고, 한국어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도덕적 의무감의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추가>

- ③을 활용할 경우: ③은 ‘두레’라는 조직을 통해 마을 공동체의 통일과 화해를 이루고자 함을 보여준다. 마을 사람들은 상부상조하며 농사를 짓는 과정에서 서로를 재발견하고, 기존의 갈등을 해소하며, 유대감을 가진 공동체로 거듭난다. 이는 경험의 공유가 개별적으로 존재하던 개인들을 하나로 묶어 내어 더 나은 공동체를 유지할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다.
- ⑤를 활용할 경우: ⑤에서 지능형 전력망은 기존 전력 수송 방식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되고 있다. 발전소와 소비자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전력 생산과 공급, 수요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듯이 현재의 시점에서 공동체의 자유를 지켜낸 역사에 대한 기억을 재발견해 낼 수 있을 때, 과거에 대한 무지와 맹목적인 미화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고 더 나은 공동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⑦을 옹호한다.

<‘비판’의 경우>

- ⑦에서 화자는 시민 공동체를 지속하기 위해 공화국의 역사를 기념하는 것의 필요성에 대해 말한다. 공유된 기억을 토대로 시민들은 자유를 지켜낸 공화국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고 진정한 시민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는 도덕적 의무감을 지니게 된다는 화자의 주장은 ③ ④ ⑤를 통해 비판할 수 있다.
- ③은 두레를 통해 마을 사람들이 공동체의 화해와 통합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노동의 신성함을 모르는 ‘우매한 생각’에 사로잡혀 삶은 불가항력의 운명에 따른다는 ‘숙명적 인생관’을 보인다. 이는 과거를 기억하면 도덕적 의무감이 생겨 시민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④는 한국어의 사용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어 위상이 국제적으로 높아지고 있음을 설명한다. 이는 한국 문화의 가치와 의미, 아름다움을 알고 즐기며 한국어를 배우려는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한국의 역사를 공유하지 않고서도 한국어가 ‘국제어’로 통용되는 문화 공화국이 새로이 구성될 수 있다는 점에서 ⑦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다.
- ⑤는 전력 공급 시설과 소비자 간의 전력을 공급하고 관리하는 양방향 ‘지능형 전력망’을 소개한다. ‘지능형 전력망’은 전력의 효율적인 수송을 위한 목적으로 발전소와 소비자를 수평적으로 연결하고, 신재생 에너지도 포함하는 확장성이 있는 네트워크다. 이는 ⑦에서 말하는 과거와 현재를 한 방향으로 연결하고, 국가와 시민을 수직적으로 관계짓는 닫힌 공동체를 비판할 수 있다.

<추가>

- ①을 활용할 경우: ①은 버팀목과 산 나무의 관계를 통해, 과거는 사그라져 현재를 세우고 현재는 빛나지만 미래를 위해 다시 사그라져야 하는 순환적 소멸을 보여준다. 과거가 현재에 사라진다는 입장은, 과거의 기억과 재발견이 현재와 미래 공화국을 만들 수 있다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②를 활용할 경우: ②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건실한 국가로 성장하기 위해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사회 보장제도를 포함하여 국가가 시민을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는 더 나은 시민 공동체의 존립을 위해서 국가가 시민에게 공화주의적 덕성과 도덕적 의무감을 요구하는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②, ④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③, ④, ⑤를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2025학년도 인문계열

오전 · 문제 1

[①]

두려움 및 대담함에 관련해서는 용기가 바로 중용이다. 대담함이 지나친 사람은 무모한 사람이고, 두려움이 지나치고 대담함이 모자란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다. 우리와 관련된 중용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가 아니고 동일하지도 않다. 예를 들어 10은 많고 2는 적다면, 사물과 관련된 중용으로 6을 취한다. 그러나 우리와 관련된 중용은 이런 식으로 취해서는 안 된다. 어떤 이에게 10근의 음식물은 먹기에 많고 2근의 음식물은 적다고 해서, 운동을 지도하는 자가 모든 사람에게 6근의 음식물을 먹으라고 지시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6근의 음식물은 노련한 레슬링 선수에게는 적겠지만 운동을 막 시작한 초보자에게는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행위와 겪음이 중용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은 곧장 악행과 결부되는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양심(良心), 파렴치, 시기(猜忌), 그리고 행동의 경우에는 간통, 도둑질, 살인 같은 것이 그런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들 모두와 비슷한 것들은, 그것들의 지나침과 모자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들 자체 때문에 나쁜 것이라고 말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②]

텔레비전을 끄자

풀벌레 소리
어둠과 함께 방 안 가득 들어온다
어둠 속에서 들으니 벌레 소리들 환하다
별빛이 묻어 더 낭랑하다
귀뚜라미나 여치 같은 큰 울음 사이에는
너무 작아 들리지 않는 소리도 있다
그 풀벌레들의 작은 귀를 생각한다
내 귀에는 들리지 않는 소리들이 드나드는
까맣고 좁은 통로들을 생각한다
그 통로의 끝에 두근거리며 매달린
여린 마음들을 생각한다
발뒤꿈치처럼 두꺼운 내 귀에 부딪혔다가
되돌아간 소리들을 생각한다
브라운관이 뿜어낸 현란한 빛이
내 눈과 귀를 두껍게 채우는 동안
그 울음소리들은 수없이 나에게 왔다가
너무 단단한 벽에 놀라 되돌아갔을 것이다
하루살이들처럼 전등에 부딪혔다가
바닥에 새카맣게 떨어졌을 것이다
크게 밤공기 들이쉬니
허파 속으로 그 소리들이 들어온다
허파도 별빛이 묻어 조금은 환해진다

[③]

탄소는 주기율표의 14족 원소로, 원자가 전자가 4개이다. 원자가 전자가 1~3개, 5~7개인 다른 원소들은 최대 3개의 원소와 공유 결합을 형성할 수 있지만, 탄소는 4개의 공유 결합을 이룰 수 있다. 이러한 전자 배치 덕분에 탄소는 다양한 원소와 결합하였다. 탄소는 오랫동안 필기구나 연료로 사용되다가 최근에는 새로

운 소재로 거듭나고 있다. 연필심에 사용하는 흑연은 탄소가 육각형 형태로 배열된 평면이 층층이 쌓여 있는 구조이다. 이 흑연의 한 층만 벗겨 내어 탄소 원자들이 평면을 이루고 있는 구조를 그래핀(Graphene)이라고 한다. 흑연과 그래핀은 모두 탄소로 되어 있지만 구조가 달라지면서 새로운 성질을 나타낸다. 그래핀은 유연성, 전기 전도성, 열전도성 등이 높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통신 기기, 태양 전지, 에너지 저장 장치, 의료 기기, 군사용 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미래의 신소재로 주목받고 있다.

[④]

시장에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서로 같을 때 시장은 균형 상태에 있다고 한다.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결정되는 가격을 균형 가격, 이때의 거래량을 균형 거래량이라고 한다. 균형 가격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일치하므로 수요자는 상품을 원하는 수량만큼 살 수 있고, 공급자도 팔고자 하는 수량을 모두 팔 수 있다. 시장 가격이 균형 가격보다 낮아 수요량이 공급량보다 많은 상태를 초과 수요라고 한다. 초과 수요 상태에서는 수요자들이 사고자 하는 수량을 모두 살 수 없고, 이는 시장에 공급량이 부족함을 의미한다. 수요자들은 현재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상품을 사려고 경쟁한다. 시장이 효율적 자원 배분에 실패하는 경우 정부는 시장에 개입하여 시장 실패를 개선하려고 노력한다. 정부 스스로가 공급자가 되어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정부의 권한을 활용하여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정부가 여러 형태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

[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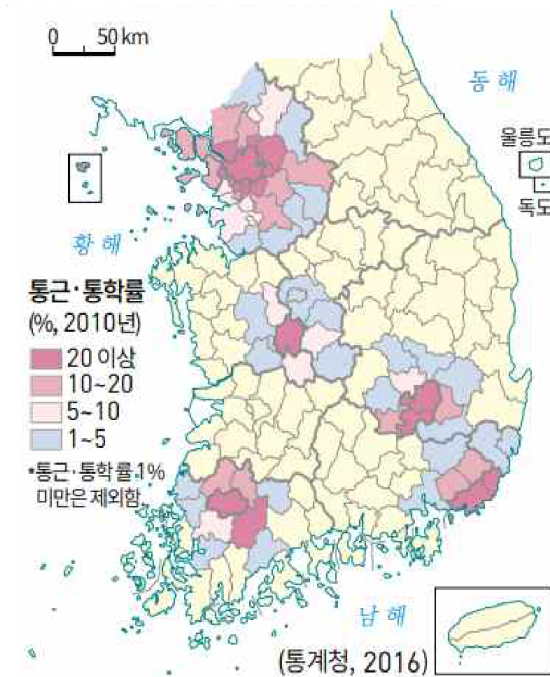
영희의 이야기를 나는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영희는 독일 하스트로 호수 근처에 있다는 릴리푸트*읍 이야기를 했다. 자세히 듣지 않아도 슬픈 이야기였다. 돌아간 아버지를 생각하면 언제나 눈물이 나려고 했다. 릴리푸트읍은 국제 난쟁이 마을이다. 여러 나라의 난쟁이들이 그곳에 모여 살고 있다. 키가 칠십팔 센티미터로 세계에서 제일 작은 사나이인 터키인 난쟁이도 최근에 그곳으로 이주했다. 릴리푸트읍의 난쟁이 인구는 늘어만 간다. 릴리푸트읍을 제외한 곳은 난쟁이들이 살기에 모든 것의 규모가 너무 커서 불편하고 또 위험하다. 난쟁이들에게 릴리푸트읍처럼 안전한 곳은 없다. 집과 가구는 물론이고, 일상 생활용품의 크기가 난쟁이들에게 맞도록 만들어져 있다. 그곳에는 난쟁이의 생활을 위협하는 어떤 종류의 억압·공포·불공평·폭력도 없다. 권력을 추종자에게 조금씩 나누어 주고 무서운 법을 만드는 사람도 없다. 릴리푸트읍에는 전제자*가 없다. 큰 기업도 없고, 공장도 없고, 경영자도 없다. 여러 나라에서 모인 난쟁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도록 축소시켰다. (중략) 지금 릴리푸트읍의 난쟁이들은 자기들의 특수 의료 문제, 사회 심리적인 문제, 그리고 재정 문제 등을 토의하고 있다. 해결해야 될 몇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우리는 극히 행복하다.”라고 마리안느 사르 읍장은 말했다.

* 릴리푸트: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의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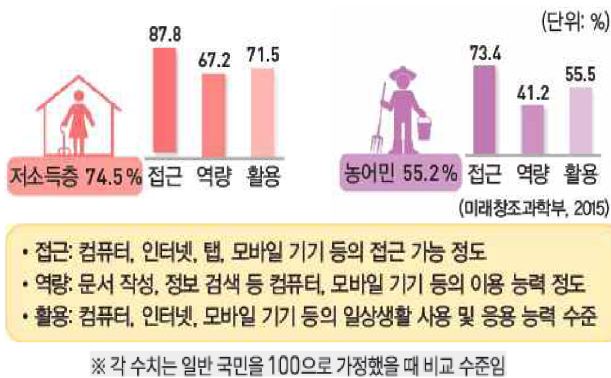
* 전제자: 국가의 권력을 장악하고 자신의 의사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사람

【문제 1】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사회적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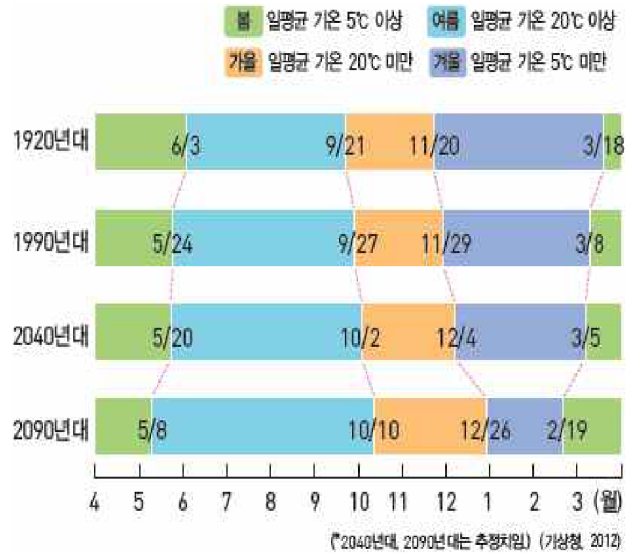
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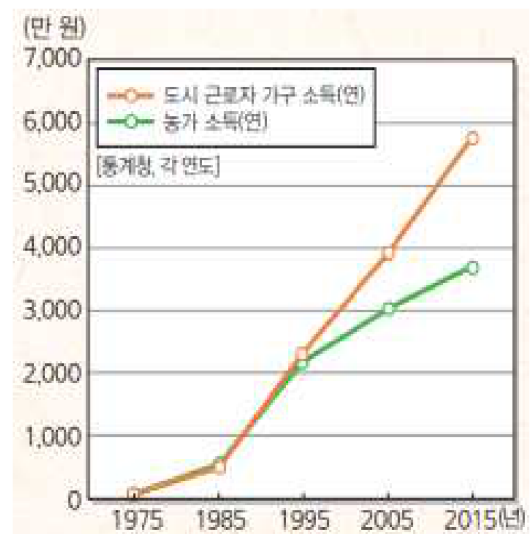
[그림 1] 대도시 주변의 통근·통학률



[그림 3] 정보 격차 실태



[그림 2] 서울의 계절 길이 변화



[그림 4] 도시와 농촌의 소득 변화

■ 예시 답안

⑥은 도시화로 인한 환경 및 지역 간 격차 문제를 보여준다. [그림-1]은 대도시 집중, [그림-2]는 도시화로 인한 기온 상승, [그림-3]은 농어민의 낮은 정보 능력, [그림-4]는 도농 간 소득 격차 문제를 보여준다. 도시화 문제는 정책적 차원과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이 있다. ④에서 ‘정부 개입’은 ‘정부가 공급자’가 되어 지역 혁신 도시를 육성하고, 수도권 기업을 ‘규제’하거나, 지방 이전 기업의 세금을 완화하는 ‘경제적 유인’을 통해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간 격차를 감소시킬 수 있다. 또 농촌에 정보기술을 보급하고 정보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⑤에서 ‘릴리푸트읍’은 기업이나 공장 없는 ‘난쟁이 마을’이 행복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 주며, 이는 개인적 차원의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농촌 마을에서 지역 브랜드 또는 관광 등을 활성화하고, 도시 지역민들은 더불어 사는 의식을 가지고 지역 소비에 참여하는 행동을 통해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또 귀촌 등을 통해 인구 집중을 줄이거나 자동차 또는 전자기기 이용을 줄이는 친환경 행동을 통해 기온 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①에서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은’ 적절한 상태인데, 도시 지역의 인구 및 기온 상승을 억제하고 농촌 지역의 정보 능력 및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중용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중용은 ‘모두에게 동일하지 않으므로’ 도시와 농촌 지역을 기계적으로 동일하게 맞추는 것이 해결책은 아니다.

②에서 도시 문명을 상징하는 ‘텔레비전’을 제한함으로써 자연을 상징하는 ‘풀벌레 소리’와 공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시 지역민들의 귀촌 등을 통해 인구 집중을 줄이거나 자동차 또는 전자기기 이용을 줄이는 친환경 행동을 통해 기온 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다. ③의 ‘그래핀’은 흑연과 같은 탄소 원소로 구성되었으나 다른 성질을 지니며 신소재로 활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래핀을 이용한 태양전지 또는 에너지 저장 장치 등 친환경 기술을 활용하여 기온 상승을 감소시킬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1	제시문 ① ④ ⑤를 활용해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④ ⑤ 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② ③을 선택한 답안 참조)

오전 · 문제 2

※ 제시문 ①~⑤는 앞 문항(오전 · 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여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화자가 주장하는 바를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아, 사람들은 세상의 사물 중에 터럭만 한 작은 것이라도 하늘에서 그 근거를 찾는다. 그러나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

(중략)

나는 알지 못하겠다. 캄캄하고 흙비 자욱한 속에서 하늘이 과연 어떤 물건을 만들어 냈을까. 국숫집에서 보리를 갈면 작거나 크거나 가늘거나 굵거나 할 것 없이 뒤섞여 바닥에 쏟아진다. 무릇 맷돌의 작용이란 도는 것일 뿐이니, 가루가 가늘거나 굵거나 무슨 의도가 있었겠는가.

그런데도 사람들은 “뿔이 있는 것에게는 뿔니를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이는 마치 사물을 만들면서 빠뜨린 게 있는 듯 여기는 것이니, 잘못된 생각이다. 감히 묻는다.

“이빨을 준 건 누구인가?”

사람들은 대답하리라.

“하늘이 주었다.”

다시 묻는다.

“하늘이 무엇 때문에 이빨을 주었을까?”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씹게 하려는 것이다.”

다시 이렇게 물어보자.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리라.

“그게 바로 ‘이치’입니다. 새나 짐승들은 손이 없으므로 반드시 부리나 주둥이를 구부려 땅에 대고 먹을 것을 구하지요. 그러므로 학과 같이 다리가 긴 새는 목을 길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그래도 혹 땅에 닿지 않을까 염려하여 부리를 길게 만들었습니다. 만일 닭의 다리를 학의 다리처럼 길게 만들었다면 드락에서 굶어 죽었을 겁니다.”

나는 크게 웃으면서 다시 말하리라.

“그대들이 말하는 ‘이치’란 것은 소, 말, 닭, 개에게나 해당할 뿐이다. 하늘이 이빨을 내린 것이 반드시 구부려서 사물을 씹도록 한 것이라 해 보자. 그러면 지금 저 코끼리에게는 쓸데없는 어금니를 심어 주어 땅으로 고개를 숙이면 어금니가 먼저 닿는다. 이런 모습은 오히려 씹는 것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닌가?”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것은 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말하리라.

“긴 어금니를 주고서 코를 핑계로 델 양이면, 차라리 어금니를 없애고 코를 짧게 하는 게 낫지 않은가?”

그러면 더 이상 우기지 못하고 슬며시 굴복하고 만다.

우리가 배운 것으로는 생각이 소, 말, 닭, 개에게 미칠 뿐, 용, 봉, 거북, 기린 같은 짐승에게까지는 미치지 못한다. 코끼리가 범을 만나면 코로 때려 죽이니 그 코야말로 천하무적이다. 그러나 쥐를 만나면 코를 둘 데가 없어서 하늘을 우러러 멍하니 서 있을 뿐이다. 그렇다고 쥐가 범보다 무서운 존재라 말한다면 조금 전에 말한바 이치가 아니다.

■ 예시 답안

·‘옹호’의 경우

⑦에서 화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은 하늘이 정해둔 이치에 따라 설계된 것이라는 통념을 비판한다. 국한된 경험에 근거한 원칙과 이론보다 개별 사물에 대한 관찰과 경험에 기반할 때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① ② ③을 통해 옹호할 수 있다.

①은 중용이 산술적 평균이 아니며 사람마다 체질과 상황, 필요가 다르기 때문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없다고 말한다. 중용은 개별 상황에 대해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다는 것으로, 그 적용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다. 이는 하나의 원리에 의해 만물을 이해할 수 없다는 ⑦의 주장과 통한다. ②는 텔레비전을 끄자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에서 깨닫게 된 점을 통해 문명과 이기를 비판하고 자연과의 공생을 노래한다. 텔레비전에 가려 풀벌레 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은 하늘의 이치에 사로잡혀 대상의 실재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와 비슷하다. 또 풀벌레에게도 작은 귀와 여린 마음이 있으나 나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자연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강조하면서 제한된 관점으로 함부로 대상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화자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다. ③은 흑연과 그래핀의 사례를 통해 동일한 원소로 이루어졌으나 구조에 따라 다른 성질을 띌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사물이 하나의 이치에 따라 고정된 존재성을 띠는 것이 아니라는 화자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즉 자연은 선형적 판단을 뛰어넘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음으로 경험적 탐구를 이어나가야 한다.

*④를 활용할 경우: 시장균형은 중앙의 의도적 통제나 계획 없이도 수요자와 공급자의 자율적인 활동에 의해 균형을 이룰 수 있음을 나타낸다. 이는 자연이 특정한 의도나 목적 없이 존재할 수 있다는 화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또 정부가 공급자로 시장에 직접 참여하고, 권한을 활용하여 시장 참여자의 행동을 규제하거나, 여러 형태의 경제적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시장 참여자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듯이, 정부의 역할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어떤 존재가 하나의 이치와 목적에 따라 고정된 존재성을 지니지 않는다는 화자의 주장과 일치한다.

*⑤를 활용할 경우: 릴리프트업의 난쟁이들은 세계를 자기들에게 맞게 축소시켰다. 이는 사람들의 의지와 필요에 따라 세상을 형성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하늘이 부여한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만 세상이 구성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난쟁이들은 릴리프트업에서 행복하다고 말하는데, 이는 그들이 기존의 사회 구조나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들의 경험에 기반하여 새로운 사회를 형성한 결과이다. 이를 통해 고정된 이치에 대한 통념을 비판하는 화자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다.

·‘비판’의 경우

⑦에서 화자는 세상에 존재하는 사물은 하늘이 정해둔 이치에 따라 설계된 것이라는 통념을 비판한다. 국한된 경험에 근거한 원칙과 이론보다 개별 사물에 대한 관찰과 경험에 기반할 때 대상에 대한 이해가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는 ① ④ ⑤를 활용하여 비판할 수 있다.

①은 중용은 지나치거나 모자라지 않는 상태이며, 덕은 중용에 있다고 말한다. 이는 다양하고 개별적인 존재성을 인정하기보다 중용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여기며 추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 모든 것에 중용을 적용할 수 없으며 그것들 자체로 나쁜 것이 존재한다는 말에서도 본질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특정한 하나의 이치로 세상을 해석할 수 없다고 본 화자의 주장과 배치된다. ④는 시장의 자연적 균형이 깨질 때 정부의 의도적인 개입이나 조정이 효율적인 해결책으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자연스러운 시스템이 불완전할 수 있으며, 균형과 조화를 위해서 고정된 의도와 목적을 지닌 존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화자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⑤의 릴리프트업은 난쟁이들이 기준을 마련하여 자신들에게 맞는 사회를 구축한 사례를 보여준다. 그들은 집과 가구, 일상용품의 크기를 조정하고 투표를 통해 읍장을 선출하고, 자신들의 기준에 맞는 사회 구조를 만들어내면서 행복을 느낀다. 이는 의도적이고 목적론적 접근을 통해 세상이 구성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화자의 주장이 간과하고 있는 지점을 지적한다.

*②를 활용할 경우: 텔레비전을 켜둘 때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단순한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화자에게 의미와 목적을 전달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는 인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연의 존재 가치와 목적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 ②에서는 풀벌레들에게 “귀뚜라미, 여치” 등 이름이 존재한다고 하여 하나하나 나뭇잎의 의미를 부여한다. 이는 ⑦의 화자가 “하늘이 어찌 하나하나 이름을 지었겠는가?”라고 말한 것과 배치된다.

*③을 활용할 경우: 탄소와 그래핀의 사례는 자연이 일정한 법칙과 원리에 따라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는 화자의 주장과 상충된다. 탄소는 주기율표라는 체계적인 법칙에 따라 14족에 속하며, 원자가 전자가 4개라는 특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는 자연이 일정한 법칙과 질서에 따라 구성되어 있음을 의미하며 이를 근거로 ⑦의 화자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2	1. ‘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제시문 ① ② ③을 활용해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⑦의 주장을 옹호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③ 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2. ‘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제시문 ① ④ ⑤를 활용해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⑦의 주장을 비판할 수 있는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④ ⑤ 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오후 · 문제 1

[①]

평상이 있는 국숫집에 갔다
 봄비는 국숫집은 삼거리 슈퍼 같다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
 세월 넘어온 친정 오빠를 서로 만난 것 같다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쫄쫄쫄쫄 쫄쫄쫄쫄,
 손이 손을 잡는 말
 눈이 눈을 쓸어 주는 말
 병실에서 온 사람도 있다
 식당 일을 손 놓고 온 사람도 있다
 사람들은 평상에만 마주 앉아도
 마주 앉은 사람보다 먼저 더 서럽다
 세상에 이런 짧은 말이 있어서
 세상에 이런 깊은 말이 있어서
 국수가 찬물에 행귀져 건져 올려지는 동안
 쫄쫄쫄쫄 쫄쫄쫄쫄,
 큰 푸조나무 아래 우리는
 모처럼 평상에 마주 앉아서

[②]

“좀 비싼데요.”

사자상을 두고 흥정을 하던 백인 여자는 그 조각품을 물리면서 말했다. 원주민 상인이 그 물건을 다시 들어 보이며 살 것을 권유했지만, 그녀의 결심은 굳은 듯했다.

“삼 실링 육 펜스요?”

옆에 있던 남편이 과장된 표정으로 크게 되물었다.

“예, 나리.”

그가 웃으며 대답했다.

“삼 실링 육 펜스라!”

남편은 못 믿겠다는 표정이었다.

(중략)

기차가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살레 풍의 역사 지붕이 움직였다. 기차를 따라 달리는 원주민들의 고함 소리가 가팔라졌다. 물건값이 뚝 떨어지고 있었다. 나무 조각상 얼굴들이 마지막으로 승객들의 구매 의향을 묻는 듯 차창 너머로 튀어 올랐다 사라졌다.

“일 실링 육 펜스에 가져가세요, 나리!”

흡사 날아오는 공을 잡듯 사람들의 손이 바빠졌다. 한 남자가 황급히 주머니를 뒤져 일 실링 육 펜스를 꺼내 던졌다. 따라오던 한 늙은 원주민이 숨을 헐떡거리며 마른 발가락으로 모랫바닥을 세차게 차 내면서 사자상을 던져 주었다.

흑인 아이들이 손을 흔들어 주었다. 개들도 떠나는 기차를 배웅하듯 꼬리를 살살 흔들었다. 토담집의 한 여자가 허리에 손을 얹고 떠나는 기차를 바라보았고 역장은 서서히 살레 지붕의 역사 안으로 들어갔다.

(중략)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여자의 얼굴에 분노의 빛이 역력했다.

“뭐가. 도대체 왜 그래?”

당황한 남편이 물었다.

“이걸 그렇게 사고 싶었으면…….”

흥분한 여자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다.

“왜 처음부터 사지 않고 그렇게 뜸을 들였죠? 왜 기차가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 샀난 말이에요. 그것도 일 실링 욕 펜스에 말이죠.”

여자는 사자상을 남편에게 떠다밀었다.

“이거 당신이 갖고 싶어 했던 것 아니야? 무척 맘에 들어 했잖아.”

“물론이에요. 그렇지만 이건 아주 훌륭한 조각품이라구요.”

여자는 마치 조각품을 보호하려는 것처럼 맹렬하게 말했다.

[③]

선의지는 오직 어떤 행위가 옳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를 선택하려는 의지이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 행위가 의무이기 때문에 행하려는 의지인 것이다. 칸트는 선의지에 따른 행위를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라고 부르면서, 결과적으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와 구분하였다. 우리는 동정심이나 연민과 같은 자연적 경향성이나, 장기적 이익과 같은 유용성 때문에 결과적으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칸트는 이 행위들이 선의지에서 비롯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가 없다고 보았다. 반면에 의무이기 때문에 곤경에 처한 사람을 돕는다면, 그 행위는 지극히 높은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그 행위는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 즉 무조건적으로 선택한 선의지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서관에서 봉사 활동을 하는 두 학생이 있다고 가정해 보자. 한 학생은 봉사 활동 점수를 잘 받기 위해 그 일을 하고, 다른 학생은 타인에게 봉사하는 것이 자신의 의무라고 생각하여 그 일을 한다. 칸트에 따르면, 앞의 학생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봉사 활동을 하므로 의무에 알맞은 행위를 했음에도 도덕적이지 않다. 반면에 뒤의 학생은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도덕적이다.

[④]

스포츠 스타 ○○○과 가수 △△, 한류스타 □□□와 가수 ◇◇, 월드 스타 ☆☆☆와 배우 ×××. 이들의 공통점은 24시간 자신들을 겨누는 카메라에 연애 현장을 들켰다는 것이다. 이들을 따라다니는 기자를 우리는 ‘파파라치(paparazzi)’라고 부른다. 미국과 영국 등 서구에서 시작돼 타이완과 홍콩 등 중화권을 거쳐 몇 년 전 국내에도 상륙한 파파라치 언론은 어느새 뉴스를 공급하는 사이트들의 ‘후원’에 힘입어 연예계에서 무시하지 못할 힘을 과시하고 있다. 부인할 수 없는 ‘결정적 사진’과 함께 제공되는 뉴스에 대중이 열광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들은 스타들의 연애에 국한하지 않고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분쟁 당사자 간의 사적인 영역인 휴대 전화 문자 메시지도 입수해 공개해 버리기도 한다. 이것도 역시 대중의 엄청난 관심을 받는다. 파파라치 언론의 ‘특종’이 늘어날수록 당연히 스타들은 괴로워진다. 스타들은 가뜰이나 스마트폰과 SNS의 발달로 사적인 영역이 줄어들었다고 하소연한다.

[⑤]

이슬람 상인은 8세기 무렵부터 동서 교역을 주도하였다. 이후 이슬람교가 서아시아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까지 퍼지면서 이슬람 세계는 하나의 무역망을 이루었다. 이슬람 상인은 중국에서 콘스탄티노폴리스까지 연결하는 비단길을 따라 낙타나 말 등을 타고 물자를 운반하였다. 바닷길에서는 아프리카에서 동남아시아에 이르는 인도양을 중심으로 교역권을 형성하였다. 이들의 활동으로 여러 지역의 물자가 서로 교환되었고, 문화와 사상의 교류가 확대되었다. 아바스 왕조의 수도 바그다드는 유럽과 지중해, 아시아를 잇는 교역의 중심지였다. 바그다드는 도시 계획에 따라 만들어진 원형 도시로 성 안에는 칼리프의 궁전, 왕족과 고급 관료의 집, 모스크 및 관청 등이 있었다. 도시를 둘러싼 원형의 성벽에는 동서남북으로 4개의 문이 있었고, 각 문은 유라시아의 여러 지역으로 연결되었다. 바그다드는 당의 장안, 비잔티움 제국의 콘스탄티노폴리스와 함께 10세기 무렵에는 인구 10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거대 도시로 성장하였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가 만나는 길목에 있어 동아시아, 인도, 서아시아 등지에서 몰려드는 물자를 유럽으로 공급하는 중간 기지의 역할을 하였다. 이스탄불이 동서 무역으로 번성한 사실은 그랜드 바자르(시장)를 통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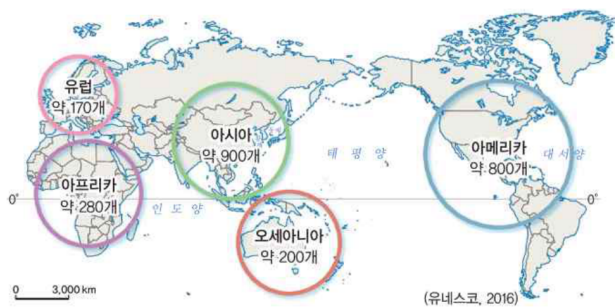
알 수 있는데, 이곳에는 4,000개 이상의 상점과 2,000개 이상의 공방이 있었다고 한다. 그랜드 바자르에서는 인도산 캐시미어, 프랑스산 향수, 페르시아산 양탄자, 중국산 도자기, 아프리카산 황금 등이 거래되었다. 그리고 이곳을 왕래한 상인들을 통해 오렌지, 레몬, 커피, 설탕, 면화 등과 그 재배법이 유럽에 소개되었다.

【문제 1】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아래 ⑥의 그림이 나타내는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시오. (50점, 답안지 1면에 700자(±50자)로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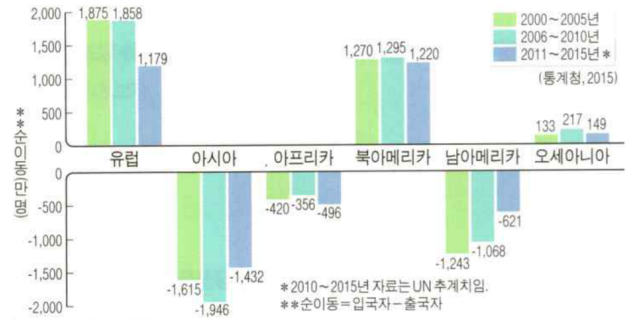
⑥



[그림1] 국가별 1인당 국내 총생산



[그림3] 대륙별 사멸 위기 언어 수



[그림2] 대륙별 인구 이동 변화

(단위: %)

[여성가족부, 2016.]

구분	우리나라	미국	독일	스웨덴
일자리가 귀할 때 자국민 우선 고용에 찬성한다.	60.4	50.5	41.5	14.5
외국인 노동자나 이민자를 이웃으로 삼고 싶지 않다.	31.8	13.7	21.5	3.5
*자신을 세계 시민으로 생각한다.	55.3	69.1	62.3	82.0

*대체로 또는 매우 그렇다.

2015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국제 지표 항목

[그림4] 다문화 수용성 관련 주요 지표

■ 예시 답안

제시문 ⑥은 세계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다룬다. [그림1]은 국가 간 빈부 격차, [그림2]는 편중된 국가 간 인구 이동, [그림3]은 사멸 위기에 놓인 언어들, [그림4]는 이민자와의 갈등 문제를 보여준다. 세계화 문제는 개인의 인식 차원 개선과 사회적 차원의 방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제시문 ①에서는 국숫집 평상에서 마주한 사람들이 서로에게 공감과 연민을 느끼고, 낯선 ‘사람들’에서 ‘우리’로의 인식 변화를 이룬다. 그림 4의 다문화 사회 문제에서도 이민자와 기존 주민들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여 타자를 이해하고 공감하는 인식의 전환을 이뤄 사회적 연대를 강화할 수 있다.

제시문 ②는 사자상을 구매할 때 발생한 흥정을 통해 공정한 거래에 대한 경제적 인식을 다룬다. 이는 국가 간 경제 격차의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다. 이야기에서 백인과 원주민의 신분 차이는 사자상 가격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구매자가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로 적절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국가 간 관계에 적용해 경제 강대국과 경제 약소국이 공정 거래를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향된 인구 이동의 문제는 제시문 ⑤의 이슬람 상인이 동서 무역을 주도해 바그다드를 거대 도시로 성장시킨 것처럼, 국가 간 무역 활성화로 해결할 수 있다. 무역 활성화를 통해 각국의 경제적 · 문화적 교류를 강화하여 낙후된 국가를 발전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인구 유출을 줄여 안정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 추가

제시문 ③은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관을 바탕으로, 도덕적 행동이 결과가 아니라 의무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그림 4에 나타난 다문화 수용 태도 문제 해결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교육을 통해 의무론적 관점에서 도덕적 관념을 상정하고 이민자를 한 나라의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제시문 ④는 연예인의 사생활을 뒤쫓는 파파라치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파파라치들의 행동이 보도 대상자에게는 괴로움을 줄 수 있지만, 뉴스에 열광하는 대중을 역으로 이용할 수 있다. 세계화로 인해 사멸해가는 언어 현황을 보여주는 그림 3의 경우 언어가 인류 전체의 공동 자산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의 힘을 이용해 사멸해가는 언어의 문제를 보도하는 방식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1	제시문 ①, ②, ⑤를 활용하여 답안을 구성했으며, 각 지문의 주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⑥에 나타난 사회적 현상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의 근거로 삼은 경우, 높은 점수 부여. 단 ①, ②, ⑤ 외의 제시문을 활용했다 하더라도 논리적으로 타당하게 설명한 경우, 높은 점수 부여. (③, ④를 선택한 답안 참조)

오후 · 문제 2

※ 제시문 ①~⑤는 앞 문항(오후 · 문제 1)을 참고하시오.

【문제 2】 위의 글 ①~⑤ 가운데 셋을 선택하고 그것을 근거로 옹호나 비판 어느 한쪽의 입장에서 아래 글 ⑦의 주장에 대해 평가하시오. (50점, 답안지 2면에 700자(±50자)로 작성)

[⑦]

자유 시장에서의 거래는 ‘최선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진행되지만, 여기서의 이익은 쌍방을 위한 것이다. 18세기 경제학자이자 철학자인 애덤 스미스(Adam Smith)의 고전적 사례를 인용하면, 빵집과 정육점 주인은 손님 돈과 교환하기 위해 물건을 판매한다. 스미스도 지적했듯이 이 관계는 자기 이익을 기반으로 한다. 돈이 필요해서 빵과 고기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의 거래가 형성되면 서로가 이익을 얻어야 한다. 거래가 처음부터 반드시 양쪽의 계획하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급과 수요라는 현실 위에서 거래가 형성되므로 상호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자유 시장 경제는 이런 상호 이익이 교환되는 격자무늬 구조이다. 각각의 무늬들이 연합하여 애덤 스미스가 지칭한 ‘보이지 않는 손’이 만들어지고 모든 자원들이 가장 필요한 곳으로 흐른다. 그렇다면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는 어떻게 기능할까? 이것이 자유 시장의 기적이다. 자유 시장은 자연 발생적이다. 어떤 관료도 타인의 욕구나 그 충족 방식을 결정할 수는 없다. 수많은 개인들은 타인의 욕구를 충족함으로써 자신의 욕구도 충족할 방법을 찾는다. 사람들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스마트폰, 세탁기 등 혁신적인 물건을 만드는 기업을 만든다. 이를 통해 자본과 혁신이 형성되고 경제적 성장으로 이어져 사회 전체의 번영을 이룬다.

■ 예시 답안

• 옹호의 경우

제시문 ⑦은 자유 시장에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모두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이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제시문 ②, ④, ⑤의 내용이 유용하다.

제시문 ②에서 남편은 원주민과 사자상의 가격을 흥정하다 결국 처음보다 훨씬 싼 가격에 구매함으로써 이익을 취한다. 제시문 ⑦에 의하면 자유 시장에서 각 개인은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율성이 보장된다. 원주민과 남편의 거래는 제시문 ⑦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방식과 부합하며, 자유 시장에서는 개인의 자율적 선택이 사회 전체의 번영으로 이어진다.

제시문 ④는 연예인들의 사생활을 뒤쫓아 대중의 관심을 충족시키고 수익을 창출하는 파파라치 언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제시문 ⑦에 의하면 자유 시장에서는 공급과 수요라는 현실 위에서 형성되는 거래를 통해 상호 이익이 극대화된다. 대중의 수요에 맞춰 정보를 공급하는 파파라치 언론은 상호 이익 구조를 통해 경제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제시문 ⑤는 이슬람 상인들이 무역망을 통해 다양한 지역과 문화를 연결하며 경제적·문화적 번영을 촉진했던 역사적 사례를 보여준다. 제시문 ⑦에 의하면 자유 시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별적인 자기 이익이 모여 형성된 상호 이익 구조가 전체 사회의 발전으로 이어진다. 자기 이익을 추구하면서도 다른 지역과 물자와 사상을 교류함으로써 상호 번영을 이루었던 이슬람 상인의 사례는 제시문 ⑦을 옹호한다.

• 추가

제시문 ①은 사람들이 국숫집에서 직접적인 교류를 통해 서로 공감하고 소통함으로써 상호 이익과 사회적 연대를 형성하는 것을 보여준다. 제시문 ⑦에 의하면 자유 시장의 거래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제적 번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자유 시장의 직접적 교류는 단순한 경제적 이익을 넘어 사회적 연대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제시문 ⑦의 주장을 옹호한다.

제시문 ③에서는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관에 따라 개인의 도덕적 행동이 의무에서 비롯한 행위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⑦에 따르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개인들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은 의도치 않게 사회 전체의 복지에 기여하게 된다.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나타나는 시장의 자율적 조정 메커니즘이 도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시문 ⑦의 주장을 옹호한다.

• 비판의 경우

제시문 ⑦은 자유 시장에서 개인이 자기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여 모두의 경제적 이익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낙관적인 견해를 제시한다. 그러나, 제시문 ①, ③, ④를 통해 이를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 ①에서 큰 푸조나무 아래 국숫집은 평상에 마주 앉은 사람들이 서로의 슬픔과 고통을 나누고 공감하는 연대의 공간이다. 그러나 상호 이익이 교환되는 격자무늬 구조로 묘사된 자유 시장에는 공동체 구성원 간의 결속이나 정서적 연대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익에 기초한 경제적 거래에서는 ‘눈이 눈을 끌어 주는 말’을 통해 드러나는 정서적 교감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제시문 ③에서 칸트는 ‘선의지’로부터 비롯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지닌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시장에서 이뤄지는 거래는 도덕적이지 못하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사람들 간의 거래가 상호 이익의 극대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의무에 알맞은 행위’일 수 있으나, 이는 결국 이익을 얻고자 하는 욕구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의무로부터 비롯한 행위’는 아니기 때문이다.

제시문 ④에서 대중의 소비 욕구와 수익을 얻기 위한 파파라치의 활동으로 인해 스타들의 사생활이 침해받고 있다. 이는 개인의 권리와 사생활 보호보다 상업적 이익이 우선시되는 시장의 문제점을 드러낸다. 자유 시장에서 개인의 이익 추구가 다른 사람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보이지 않는 손의 조정 기능이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기준을 항상 충족시키지 않음을 보여준다.

• 추가

제시문 ②에서 남편은 흥정을 지연시켜 가격을 낮추고, 아내는 이 거래가 공정하지 않다고 느낀다. 이는 자유 시장에서의 거래가 누구에게나 ‘이익’이 된다는 주장과 달리, 현실에서 강자의 이익은 약자의 희생에 기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경제적 효율성을 강조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거래가 서로 다른 위치에 놓인 사람들의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제시문 ⑤에서 이슬람 상인들이 주도한 무역으로 인한 혜택은 특정 도시에 집중되었다. 이는 자유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의 작용에 의한 경제적 혜택이 모두에게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음을 보여준다. 자유 시장에서 경제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래는 경제적 불평등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비판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하위 문항	채점 기준
2	1. ‘옹호’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②, ④, ⑤를 골라 ⑦을 옹호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2. ‘비판’의 입장을 선택한 경우, ⑦이 주장하는 바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①, ③, ④를 골라 ⑦을 비판하는 답안을 작성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함. 그러나 다른 제시문을 근거로 선택한 경우에도 논리적 타당성을 갖추었을 때 좋은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AI 논술 자동 첨삭

써봄

기출로 연습했다면, 이제 써보고 바로 첨삭받자.

Google Gemini 기반 한국어 논술 자동 첨삭 서비스

01

4개 영역 점수

논리구조 · 근거타당성 · 주장명확성 · 언어표현 영역별로 점수를 매겨 줍니다.

02

상세 피드백

강점, 개선점, 구체적인 제안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합니다.

03

일괄 첨삭

교사·강사는 학생 답안을 최대 10편까지 한꺼번에 올려 처리할 수 있습니다.

04

간편한 업로드

PDF · DOCX · TXT 파일을 그대로 올리면 됩니다.

이용 안내

무료 체험	회원가입 시 3회 무료 분석
개인 플랜	월 9,900원
교사 플랜	월 29,900원

논술 수험생 · 논술 교사와 강사 · 학원과 교육기관



writegrow.net

QR 코드를 스캔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